

대형 화재 3개월 만에...금타 현장 감식 착수

SOCIETY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13일부터 건물 해체 작업 시작...붕괴 위험 속 지연 감식 작업은 발화 추정 2층 전기오븐 중심으로 진행

대형 화재로 가동을 멈춘 금타타이어 광주공장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감식이 3개월 만에 첫 발을 뒀다. 18일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타타이어 광주공장. 공장 한쪽에는 지난 5월 발생한 화재로 검게 그을린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압쇄기와 절단 기계 등 중장비가 전소된 공장 건물 해체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또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 등을 줄이고자 마련된 살수차에서도 실제 없이 물이 뿌려지고 있었다. 화재로 전소된 2공장 정련동 건물 내부는 폐허와 다름없었다. 공장 주변으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토사, 그리고 타이어 공정에 필요한 기계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첩간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등 처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공장 일부는 해체 작업으로 인해 화재 이전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무너져 있었다. 앞서 금타타이어는 지난 12일 광산구로

부터 광주공장 2공장인 정련공정 건물의 해체 착공 신고를 승인받았다. 이후 화재 잔해물 정리와 가림막 설치 작업이 이뤄졌고 해체 준비작업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인 건물 해체에 들어갔다. 사고 현장이 건물 해체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발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펼쳤다. 앞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감식이 이뤄져야 했지만, 전문가 안전진단 결과 건물 구조물이 화재로 약해져 붕괴 위험이 확인되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 이날 감식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 2층 산업용 대형 전기 오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서 서구는 올해 1월 여성 안전 시각 지대 해소를 위해 CCTV·비상벨·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여성 1인 가구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했



18일 해체공사가 진행 중인 광산구 소촌동 금타타이어 2공장 정련동 건물에 대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감식이 진행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다. 이외에도 경찰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 및 대책 마련 여부, 방화문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17일 오전 7시10분께 금타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정련공정 일대

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축구장 3개 면적을 태운 뒤 77시간 만에 지난 5월20일 오전 완전히 꺼졌다. 현재 해체 작업은 현장 감식, 현장 보존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경찰이 임회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해체 작업은 중장비를 이용한 압쇄 공

법으로 건물 위층부터 아래층으로 차례로 부수는 식으로 이뤄진다. 철거 완료까지는 3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해체로 인해 발생할 건축 폐기물 4013대 분량인 9만2311t으로 예상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55 달출 01:06
 맑음 19:17 달진 16:42



광주	구름	25-33
목포	구름	26-32
여수	구름	26-32
순천	구름	24-33
구례	구름	24-34
광주	맑음	25-33
임도	구름	25-33
죽산도	맑음	25-31
고흥	구름	24-33
진도	구름	24-32

목포	미물(고)	10:06 / 23:35
	쌀물(저)	04:10 / 15:55
여수	미물(고)	05:50 / 18:55
	쌀물(저)	00:19 / 11:50

서구, 여성 주거 안전 '안심키트' 지원

광주 서구가 여성 1인 가구 등 주거 안전 취약계층의 범죄 예방에 나선다. 서구는 18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신·방범 용품으로 구성된 '안심키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와이파이어 미설치 등 설치 환경 제약으로 집 알 CCTV 설치 제약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안심키트는 LED 안전 호루라기, 호신용 스프레이, 택배 송장 지우개, 침문 잠금장치 2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미니 소화기 등 6종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 범죄 피해 여성 등으로, 총 50가구를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양성아동복지과(062-360-7645)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evok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구는 올해 1월 여성 안전 시각 지대 해소를 위해 CCTV·비상벨·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여성 1인 가구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했

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남구 아파트 단지서 불...스프링클러 없어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보였다. 18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후 12시 55분 광주 남구 노대동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인해 한 세대가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화상을 입은 50대 여성과 단순 연기를 마신 16명 등 총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에 의해 18분 만에 완진됐다.

당국은 세대 내 거실에서 휴대전화 등의 배터리를 충전하던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 단지는 지상 15층 규모로 지난 2007년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법상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부터 16층 이상에 적용되기 시작,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임영진 기자 looks@

발목 골절 수술했는데 피부 괴사...합의 난망

30대 여성 피해자 "집도의, 수술 과정 실수 인정" 병원 측 "도의적 사고일 뿐...보상안 환자가 거절"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골절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수술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물어야 할 상처가 오히려 피부 괴사까지 진행되면서 속살이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18일 제보자 30대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께 병원에서 넘어져 광주 북구의 한 병원을 방문, 외측복사의 골절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한 지 4개월이 지난 6월 초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골절 수술로 좌측 발목 복숭아뼈부터 종아리까지 10cm 정도의 흉터가 생겼는데, 이중 1cm 크기의 상처는 붉은 빛을 띄며 피가 굳어 딱지가 지기까지 했다. A씨는 발목통증을 느껴 구급대에 올라가 A씨는 지난달 초 지역 내 피부과를 내원, 피부 케어 소견을 받고 수술 부위를 다시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는 "상처 부위에 노란 고름이 차올라

부모님과 피부과를 방문했다"며 "해당 피부과에서는 피부 괴사까지 진행됐을 수도 있으니 수술을 받은 병원을 방문해 조치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수술을 받은 병원을 찾은 A씨는 총 3회에 걸쳐 군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듣지도 못한 채 3일 연속 항생제를 주사로 투여받았고, 수술 부위 봉합 시술을 받으며 병원 측으로 귀환했다. A씨는 "통증을 구하고 녹음한 파 일까지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보상안도 급속 제거술 비용만 제시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고, 환자가 피해를 호소하니 집도의가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고 답했다. 한편, A씨는 다른 병원에서 급속 제거술과 피부 케어에 따른 치료를 받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접수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른 병원에서 수술받으려는 말 뿐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는 그만큼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미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악화한 데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고, 집도의로부터 알겠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도의의 사과로 끝날 것 같았던 보상 처리는 원만하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했던 병원 측이 말을 바꿔 버려서다. A씨는 "병원 측에서는 집도의가 도의적 차원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뿐이라 주장한다"며 "통증을 구하고 녹음한 파 일까지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보상안도 급속 제거술 비용만 제시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고, 환자가 피해를 호소하니 집도의가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고 답했다. 한편, A씨는 다른 병원에서 급속 제거술과 피부 케어에 따른 치료를 받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접수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음주측정 안 해"

미네편...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18일 광주 광산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18분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도로에서 경찰관 B씨를 때린 혐의를 받아, 당시 B씨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도 착한 상태였다고. 조사 결과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임정호 기자 jh4415@

무더위에 벌이 사람 잡는다... '벌 쏘임' 주의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 벌 쏘임으로 인한 구급 출동 총건수는 2729건(광주 331건·전남 2398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145건(광주 131건·전남 1014건), 2023년 569건(광주 80건·전남 489건), 2024년 1015건(광주 120건·전남 89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여름철(6~8월)에는 2022년 783건(광주 78건·전남 705건), 2023년 265건(광주 48건·전남 217건), 2024년 596건(광주 81건

·전남 5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광주·전남에서도 벌 쏘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3시26분 해남군 화원면의 한 마을 인근 밭에서 70대 A씨가 말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발목통증을 느껴 구급대에 올라가 A씨는 지난달 초 지역 내 피부과를 내원, 피부 케어 소견을 받고 수술 부위를 다시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는 "상처 부위에 노란 고름이 차올라

광주·전남 최근 3년간 2729건...여름철 60% 집중 알레르기 등 치명적 "밝은색 옷 착용·화장품 자제"

에 벌 쏘임을 당한 B씨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난해 8월19일 오후 1시18분 해남군 해남읍 한 폐교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C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해 7월18일에는 오후 6시29분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D씨(52)가 벌에 쏘였다. 오른쪽 눈에 부종이 난 D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소방 당국은 무더위되는 날씨

에 벌 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야외활동에 주의하고 벌을 잡거나 벌집을 제거하지 말고 향수, 화장품 등 자제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벌에 쏘이게 되면 통증과 부종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전신 알레르기 반응) 등 치명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독집을 손으로 짜내지 말고 신용카드 등 평평한 물체로 밀어내 제거하는 것이 좋다. 소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이 완화

된다. 벌독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19에 신고한 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벌이 쏘여 공격할 때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20m 떨어진 곳으로 머리를 보호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며 "벌 쏘임 사고 예방에는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긴 옷을 착용하고, 향이 강한 화장품, 향수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벌 쏘임 예방수칙을 담은 리플릿과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보건소, 농업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각 상황별 예방법과 응급처치 방법을 담은 리플릿은 국가손상정보포털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